

[H 갤러리]

SEPTEMBER COLLECTION

9. 1. – 9.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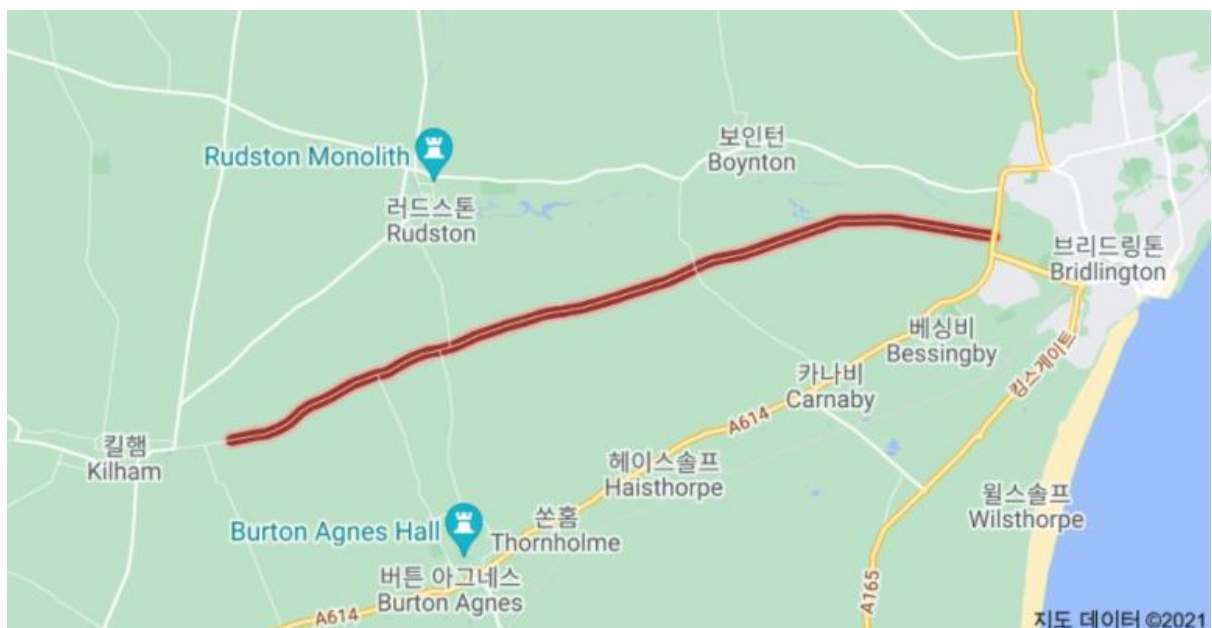
PHILIP. HAN.

David Hockney(1937 ~ , 영국)

9. 9. 목.

2004년 데이비드 호크니는 영국 요크셔에 있었다. Woldgate 연작을 위해 찾아간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새로운 재료를 시도하려는 호크니의 호기심이 발동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 면에서 볼드게이트 연작은 그간 썼던 무거운 유화 물감에서 탈피 경쾌한 수채화였다. 수채화를 선택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짐작컨대 그림은 가장 그림다워야 한다는 호크니 철학에 자연을 한껏 담을 수 있는 재료가 수채화라고 여긴 듯싶다.

볼드게이트는 브릴링턴 서쪽 외곽의 베싱비 언덕에서 7마일(11km) 떨어진 킬햄 마을까지 이어지는 좁은 로마 도로다. 호크니는 이 길을 따라 Woldgate 사시사철과 아침저녁을 맘껏 담았다. 그 작품 수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한 동안 그 작품을 찾아 감상하다 보면 어느새 저녁 놀이 길 지경이다.



요크셔 지방 관광과 풍물을 알리는 yocc.co.uk 는 호크니의 Woldgate 연작 대상이 되는 곳의 실물을 알리는 글을 포스팅했다. yocc 에 따르면 호크니가 woldgate 11km 를 걸으면서 그린 첫 번째 작품이 Lovely Day with Puddles. 2004.이라고 밝혔다.



Lovely Day with Puddles. 2004. 작품 실물



Lovely Day with Puddles. water paper. 2004.

이 길이 Woldgate 초입인 듯싶었다. 일직선으로 쪽 뺀 길 양옆으로
농가는 우리네 시골 풍경과 다른 점이 없어 보인다. 굳이 차이점을 든다면
비닐하우스는 없다는 점이다. 우리네 시골 풍경에서 빠질 수 없는
비닐하우스를 본다면 호크니는 어떤 말을 했을까. 어쩌면 자연과 인간이
교류하고 공존하는 방식으로 그 자체로 소중한 기록이라고 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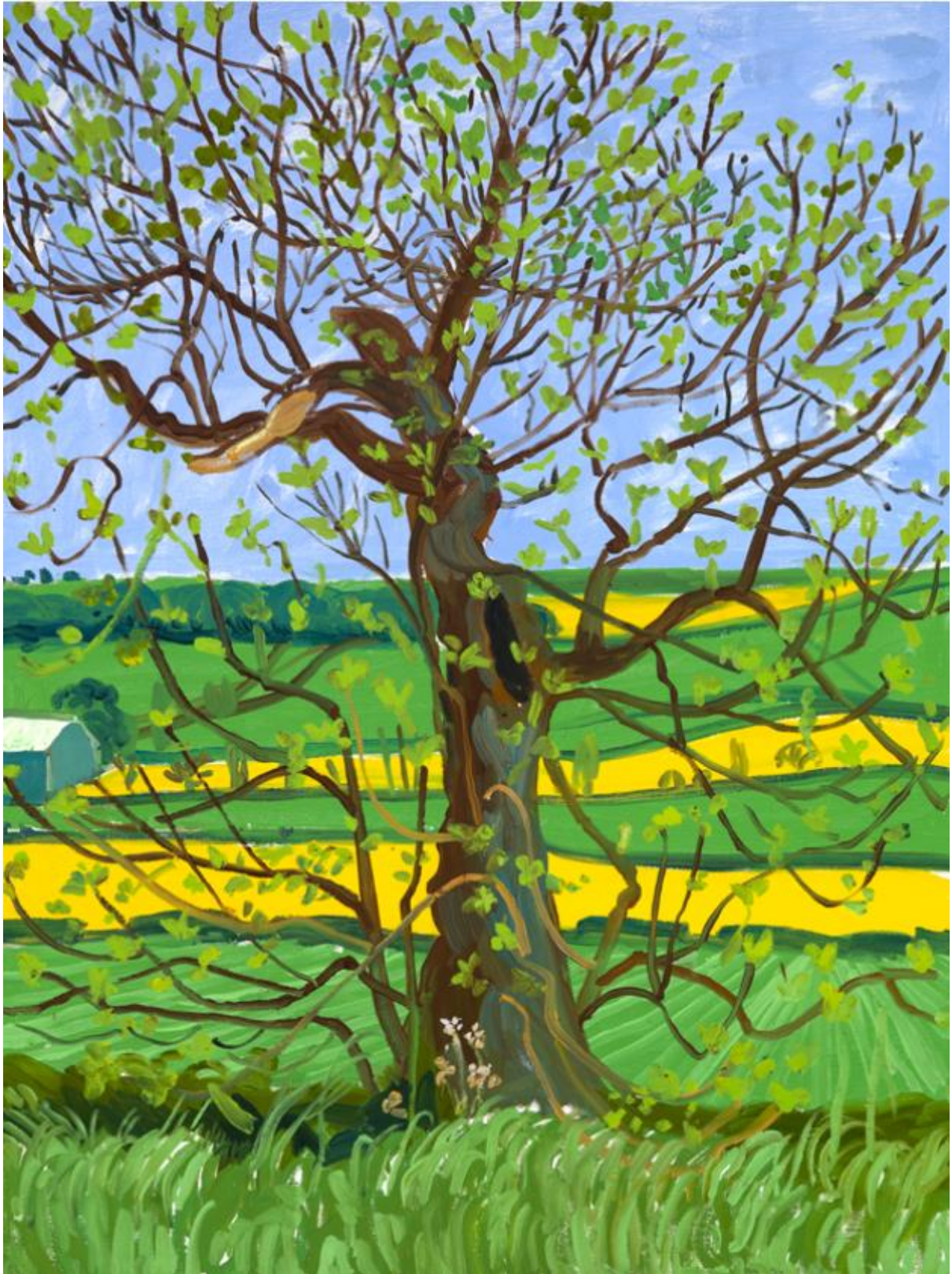
이 Woldgate 연작을 시작했을 때부터 였을까 호크니는 자연에 무척 심취해
있다. 호크니의 자연에 대한 예찬은 때로는 끌로드 모네를 연상케도 한다.
모네가 자연과 빛이 자아내는 들판에서 하루 종일 빛을 따라 그림을
그렸듯이 호크니도 이곳 Woldgate 숲을 그렇게 그렸다. 심지어 비가
내리면 그 비를 고스란히 맞았다고도 한다. 이런 얘기를 접할 때마다
가슴이 쿵광거리기도 하고 당장 날아가고도 싶고 무턱대고 찾아가서 대화를
청하고 싶다.

호크니의 woldgate 연작도 아마 이런 내 마음과 같았을 것이다. 이 아름다운 풍경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 실물에 닿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인지 woldgate 풍경이 애뜻하고 아련하고 몸 달아오른다.

9. 16. 목.



사진, yocc.co.uk



Location of Woldgate Tree. 2006. thedavidhockneyfoundation.org

Lovely Day with

Puddles(<https://blog.naver.com/hfeel/222500792355>)에서 100 야드(91.44 미터) 위쪽 길에 Woldgate Tree 가 있다. 어느 한적한 길을 걷다 보면 흔하게 볼 법한 나무이다. 눈여겨 두지 않으면 언제 사라져도 대수롭지 않을 고목일 뿐이다. 한데 데이비드 호크니는 그리 보지 않은 듯싶다.

넓은 평야를 든든히 지켜준 파수꾼이었을 것이고, Woldgate 길이 낯선 이에게는 방향을 정하는 이정표로도 봤을 수 있다. 어쩌면 로미오와 줄리엣을 방불케 한 두 남녀가 이 나무에서 언약을 하고, 길을 따라 Woldgate 숲 속으로 아니면 그 밖으로 사라진 광경을 목도한 유일한 증인 인지 모른다. 이와 관련한 비밀을 지금까지도 한 마디 내뱉은 적이 없으니 듄직하고 믿음직스러운 나무 아닌가 모르겠다. 이 모든 사연을 호크니는 헤아린 듯 호크니는 펜을 들어 스케치를 시작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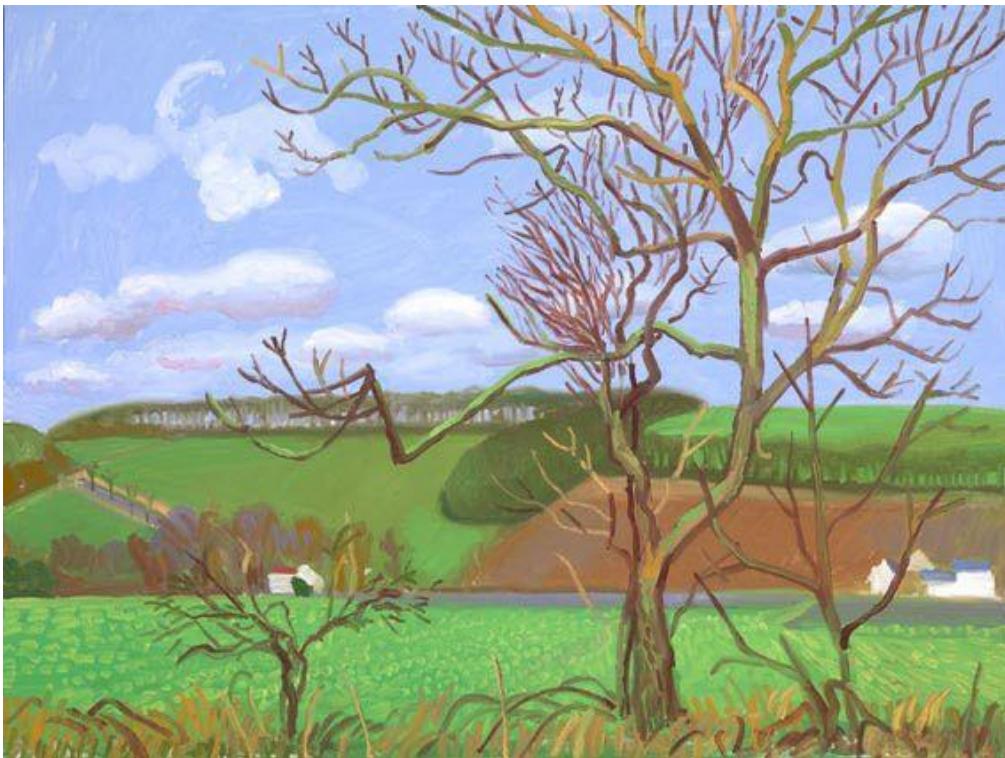
속삭속삭 나무 사연을 스케치하는 중이었을 것이다. 바람결 인지도 싶었을 것이다. 여보시오 화가 양반, 이왕이면 가장 아름다운 시절 내 모습을 그려 주시오. 한치 놀란 기색도 없이 호크니는 반문했다. 어느 시절이 가장 아름다웠소라고 말이다. 나무는 지금 이 모습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내 시절이라오. 부탁함세. 그 말을 듣고는 호크니는 이 나무를 그리는 일을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Woldgate 길에 들어선 일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저 내 고향 땅이니 곳곳을 둘러봤음 싶어서 나선 길이었을 텐데 Woldgate 나무는 지금 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누가 요크셔 땅에 뿌리내린 나무 아니랄까 봐 통명한 것이 사람으로 착각할 뻔했을 것이다. 술한 사연과 역경을 훌 몸으로 받치고 견딘 세월을 통탄할 만도 한데 그 일 모두 사르르 녹이고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 바로 지금이라는 한 마디는 호크니에게도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내게도 아름다움을 대하는 통찰이라고 밖에 따로 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 호크니 이 작품 Woldgate Tree 는 그런 울림을 성심을 다해 정성을 들인 선물 같은 그림다운 그림이다.

9. 23. 목.



사진, yocc.co.uk



Location of Woldgate winter Tree. 2006. lalou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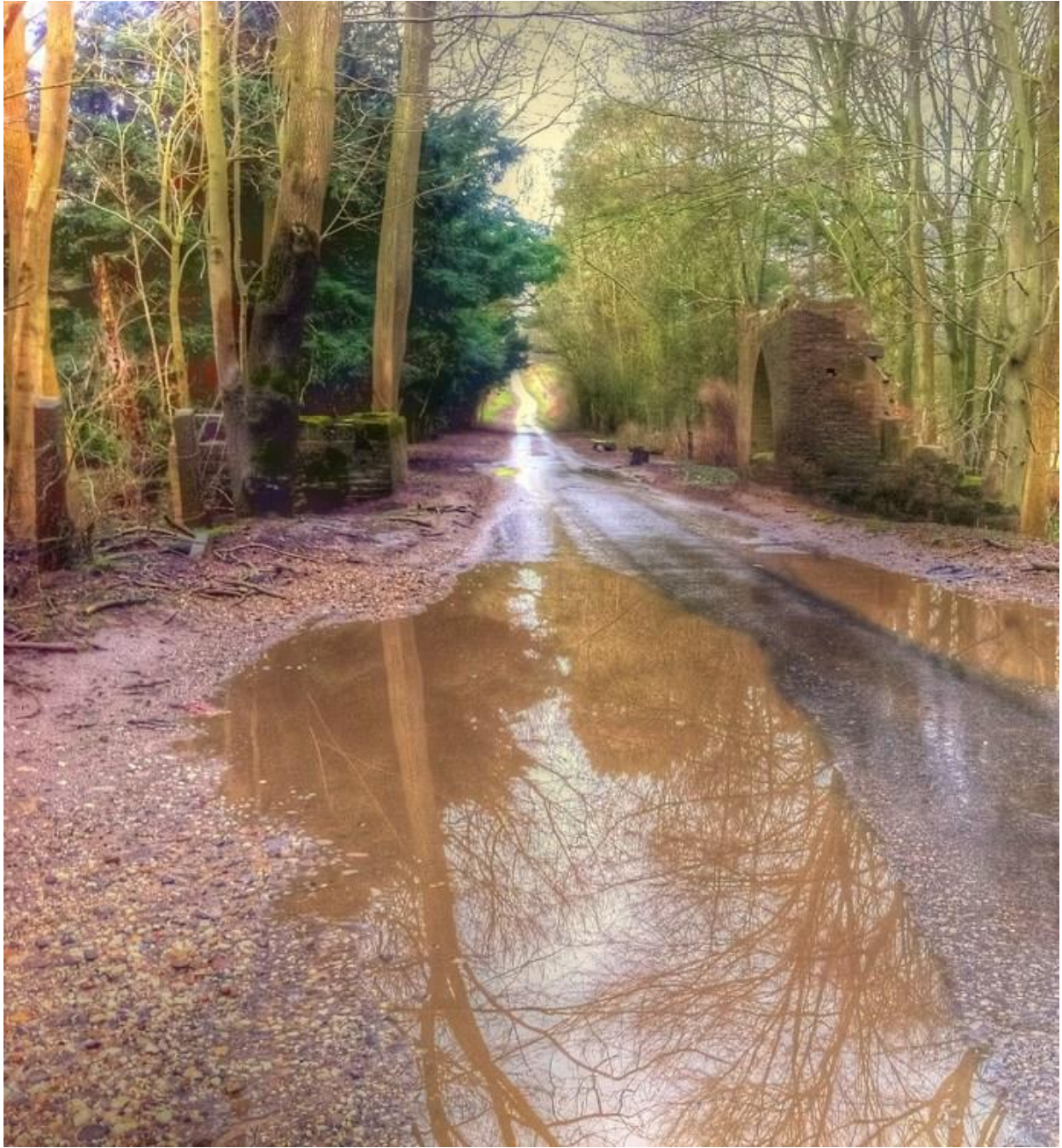
Woldgate Tree(<https://blog.naver.com/hfeel/222507734707>) 오른쪽 200 야드(182.44 미터)지점, lalouver.com 에서는 이 작품을 The East Yorkshire Landscape 로 소개하고 있다. yocc.co.uk 에서 언급한 'Woldgate Winter Tree. 2006' 작품 제목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멀리 보이는 집 위치로 보아 이 작품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Woldgate Tree 에서 이 작품 Woldgate Winter Tree 사이 풍경을 상상한다. 두 나무 사이에는 한 계절이 있어 보였다. 파릇파릇한 이파리를 돋우며 뿔내던 나무는 어느새 앙상한 가지를 내놓았다. 두 작품 속나무만으로도 자연이 시간을 쓰는 법, 호크니가 그 시간을 즐기는 법을 나는 터득한 듯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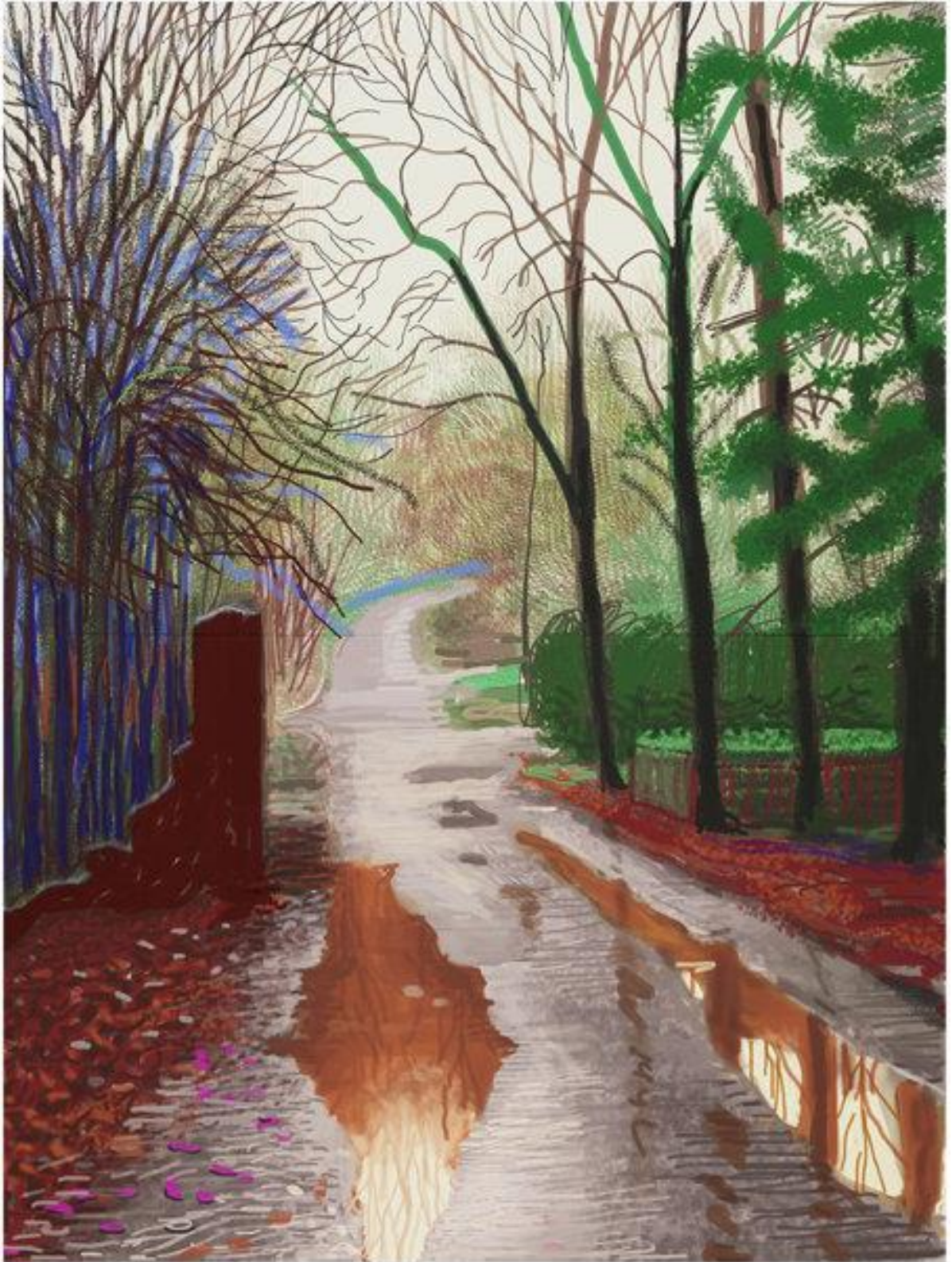
직선으로 잘 정돈된 농가와 그 주변과는 사뭇 다르게 나무는 삐뚤삐뚤 곡선이다가도 꺾이곤 한다. 성격이 모난 듯도 보이지만 그 사이사이를 구름이 차지해 그 모남도 커다란 풍경으로 만든다. 어울려 살고 더불어 사는 일이란 것이 마치 저 구름과 뾰족한 나뭇가지가 어울린 풍경이로구나 싶다.

Woldgate 날 만한 곳을 찾고 있다. 두어 곳이 떠오른다. 한 곳은 청류재라는 곳이고, 다른 한곳은 매년 다녀가는 성묘 길이다. 청류재 앞 논길은 Woldgate Tree 를 닮은 듯했고, 성묘 길 중턱에서 바라본 풍경은 Winter Tree 풍경과 흡사했다. 비교적 가까운 곳은 청류재이고, 마음이 닿아 있는 곳은 성묘 길이다. 이 두 마음이 Winter Tree 작품을 감상하는 내내 내게 있다.

9. 29. 수.



Simon Gregson, yocc.co.uk



29 December, No. 2, iPad drawing. researchgate.net 이 Richard Schmidt 사진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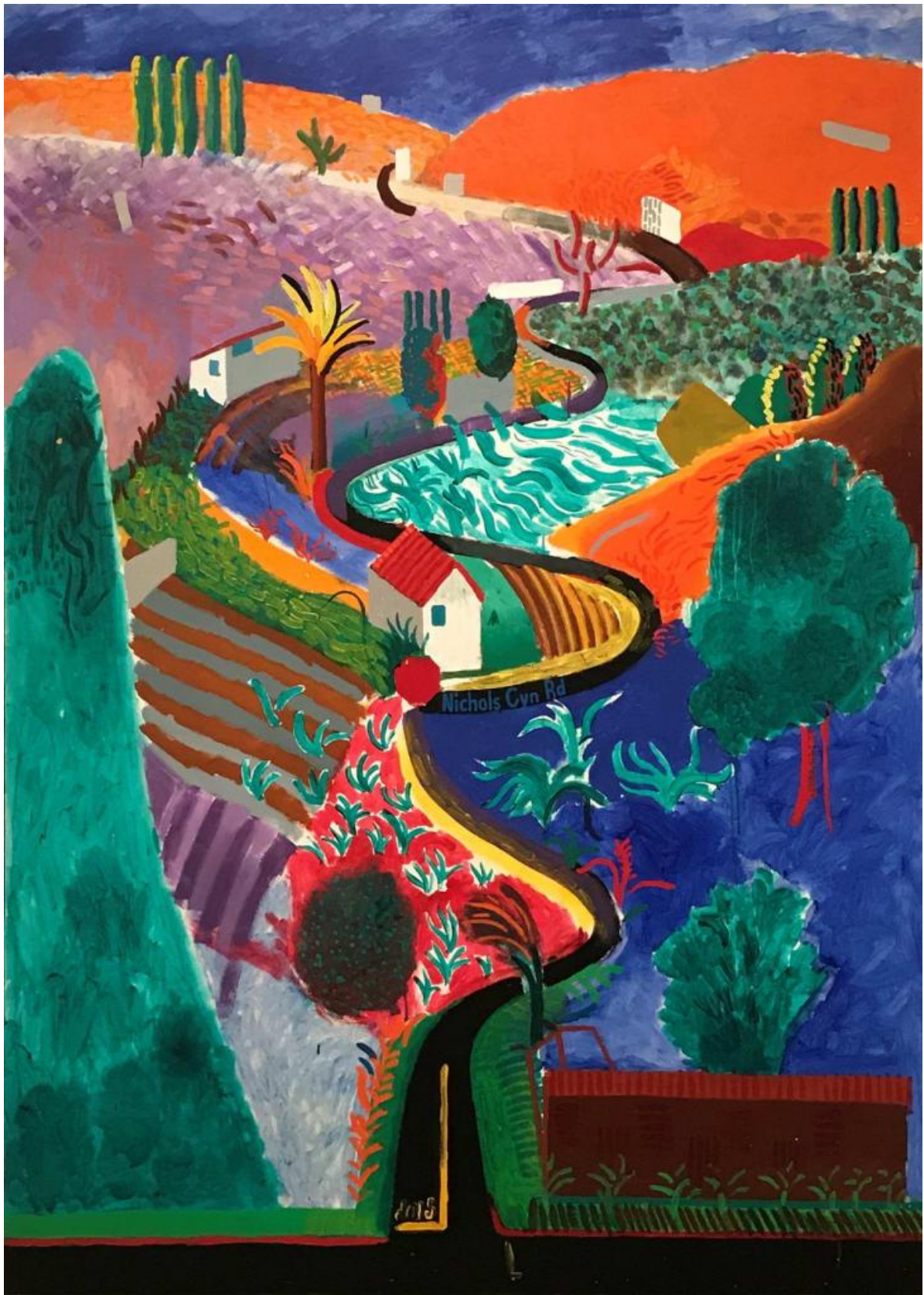
가을 부르는 비가 내렸고, 그치고서야 마중 나갔다. 붉은 노을을 삼킨 구름이 배부른 자처럼 여유를 부리다가 내 눈과 마주치곤 쏜살같이 자리를 떴다. 어딜 그리 급히 가느냐고 말 붙일 새도 없이 구름이 뜬 자리는 초저녁 별이 차지했다. 그 별을 빗물이 고인 웅덩이에서 나는 봤다. Woldgate 에도 비가 내렸을 텐데 그 길 웅덩이에도 내가 보고 있는 이 별이 유명하고 있을 것이다.

데이비드 호크니는 Woldgate 11km 길 중 어스름한 다리가 있는 이곳 풍경을 매월 한 점씩 간혹 매일매일 일기 쓰듯 그렸고, 다수 작품을 남겼다. 그 작품 한 점 한 점에는 사계절이 오롯이 담겨 있다. 그중 yocc.co.uk 는 Woldgate Bridge 10 월 풍경을 소개했다. 10 월 29 일 이곳 풍경을 담은 그림 호크니 그림을 방문 당시 풍경과 가장 알맞은 작품으로 꼽았다. 한데 yocc.co.kr 가 찍은 사진과 호크니 그림이 딱 들어맞진 않아 보인다. 짐작건대 호크니는 사진 맞은편에서 그림을 그린 것 같다. 흔적만 남은 다리 난간 위치와 그 주변 나무 형태로 보니 그렇다.

2004 년 호크니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요크셔를 떠난 지 근 40 여 년 만에 귀향이었다. 그때부터 호크니는 고향 풍경을 담기 시작했다. 사실 호크니가 풍경을 그림 소재로 삼은 계기는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작업을 하면서부터다. 그의 1970 년 대 작품은 이 폴라로이드가 내놓은 사진을 토대로 한 실험적인 작품이 많았다. 한데 1980 년쯤 호크니는 Nichols Canyon(1980)이라는 작품을 내면서 '흔들거리는 선이 삶 속에 있다'라는 말을 했고, 이 말이 어떤 계기가 된 것인지 2004 년 호크니는 요크셔도 돌아갔다. Woldgate 를 시작으로 그는 고향 주변 풍경을 쉴 새 없이 그리기 시작했다. 이 열정에 불을 지핀 것이 아이폰이었고, 호크니는 2010 년 아이패드 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연을 담는 데 최적화된 재료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Woldgate 시리즈는 2011년 The Arrival of Spring 제목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화집이 출판됐고, 호크니 팬들은 화집을 들고 Woldgate 를 방문하고는 그림과 숲을 한 자리에서 새로운 형태의 여행을 탄생시키기도 했다(<https://janetomlinson.com/david-hockney-east-yorkshire/>). 그리고 보니 내 삶 가까이 이런 여행 소재가 없는 것이 아쉽다. 해서 그런지 Woldgate 시리즈가 걸맞은 우리나라 어느 곳을 찾는지도 모르겠다.

Epilog



Nichols Canyon. 1980.

1960년 대 어느 해 호크니는 영국을 떠나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에 정착했다. 날씨마저 보수적이었던 고향 요크셔와는 다르게 LA는 호크니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도 아무렇지 않은 곳이었다. 게다가 집집마다 수영장이 있다는 사실은 호크니에게 새로운 기회였고, '수영장의 두 남자'를 대표작으로 하는 이른바 수영장 시리즈가 탄생했다.

1980년 대 어느 해 호크니는 Nichols Canyon 이라는 작품을 남겼다. 이 작품에 대한 미술사적 의미에 열중한 갤러리와는 다르게 호크니는 '흔들리는 곡선이 삶 속에 있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호크니 자신뿐이었다. 어쩌면 호크니 본인도 그 말을 하고서야 무엇인가를 깨달았는지 모른다.

2004년 호크니는 영국으로 돌아갔고, 브리드링턴에 머물렀고, 가까이 있는 Woldgate 에 산책 겸 나선 걸음이 2011년 The Arrival of Spring 이란 주제로 기념비 적인 전시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때부터 호크니에게 그림다운 그림은 자연이었고, 코로나 대유행을 겪으며 삶의 희망마저 꺾으려는 모든 이에게 안식과 위로 다시 희망을 전하는 그림 메시지 'The Arrival of Spring, Normandy 2020'으로까지 이어가고 있다.

요컨대 호크니의 'The Arrival of Spring'은 자연을 통한 인간성 회복, 자연과 인간 간 관계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고전적인 진리를 그의 업인 그림으로 남기는 그의 마지막 업적일 것만 같다. 수영장 시리즈와는 확연히 다른 전개가 의아했지만 신선했다. 하면서도 결국 자연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삶의 순환을 가장 아름다운 풍경으로 남기려는 따듯함이 있어 9월 내내 견딜 수 있었고, 이번 가을을 깊이 교감할 수 있는 한 마디가 떠 올랐다. 자연은 지루하지 않다. 자연을 바라보는 내 생각이 지루했던 것 뿐이었다.